

방언方言과 방언邦言

나 운 영

민속음악과 민족음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같은 듯하면서도 실은 같지 않습니다. 민속음악은 향토 음악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음악은 세계성을 띤 예술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속음악은 원시 상태에 놓여있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요, 민족음악은 문화적으로 발달한 음악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방언方言과 방언邦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같은 듯하면서도 실은 같지 않습니다. 방언方言은 지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방언邦言은 세계성을 띤 표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方言은 원시 상태에 놓여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요, 방언邦言은 문화적으로 발달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방언邦言이란 그 민족의 말, 그 나라의 말이란 뜻입니다.

물론 방언邦言에는 방언方言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방언方言 가운데 방언邦言이 포함되거나 또는 방언方言과 방언邦言이 같은 뜻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인 까닭에 나는 이제 새삼스럽게—별로 사용되지 않는—이 방언邦言에 대해서 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방언方言과 방언邦言, 민속음악과 민족음악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나는 방언方言과 민속음악, 또한 방언邦言과 민족음악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속음악은 방언方言과 같은 것이요, 민족음악은 방언邦言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속음악에 있어서는 일본색을 일소해야 할 것이며, 교회음악에 있어서는 서양 고전풍을 일소해야 할 것을 항상 역설하고 있는 나는 「한국교회음악의 진로」(기독교사상 제 2권 제 5호)에서 「한국적 현대음악」 내지 「현대적 한국음악」을 창조해야 하겠다는 나의 이론을 이미 발표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속조(민속풍)로 작곡한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거나 근대 또는 현대적 양식으로 작곡한 것은 교회음악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민속음악과 민족음악, 방언方言과 방언邦言이란 비유로 설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음악은 먼저 민속적인 것으로 출발하여 민족적인 것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방언方言적인 것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단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도리어 20세기 후반기에 태어난 한국 사람으로서—이방적인 동시에 방언적 존재밖에 되지 않는—낡아빠진 18세기적 서양풍을 아직도 맹목적으로 모방, 추종하려 드는 것이 그릇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모름지기 민족성과 시대성을 등진 것을 음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속적 소재를 발전 시켜 현대화하여 우리의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속음악과 민족음악!

방언方言과 방언邦言!

이 두 말의 뜻을 재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958. 5. 불기둥 >